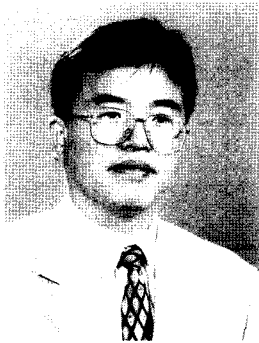


# 경기전망과 주류산업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 目 次 ■

1. 하강국면에 놓여 있는 국내경기
2. 산업활동 크게 위축
3. 경기회복 조짐 엿보여
4. 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 예상
5. 금리하락세 지속 전망
6. 물가도 비교적 안정될 듯
7. 원화가치는 절상 예상
8. 주류소비 부진세 지속
9. 주류업체 내수쟁탈전 치열
10. 맥주수입은 둔화, 위스키·포도주 수입은 견조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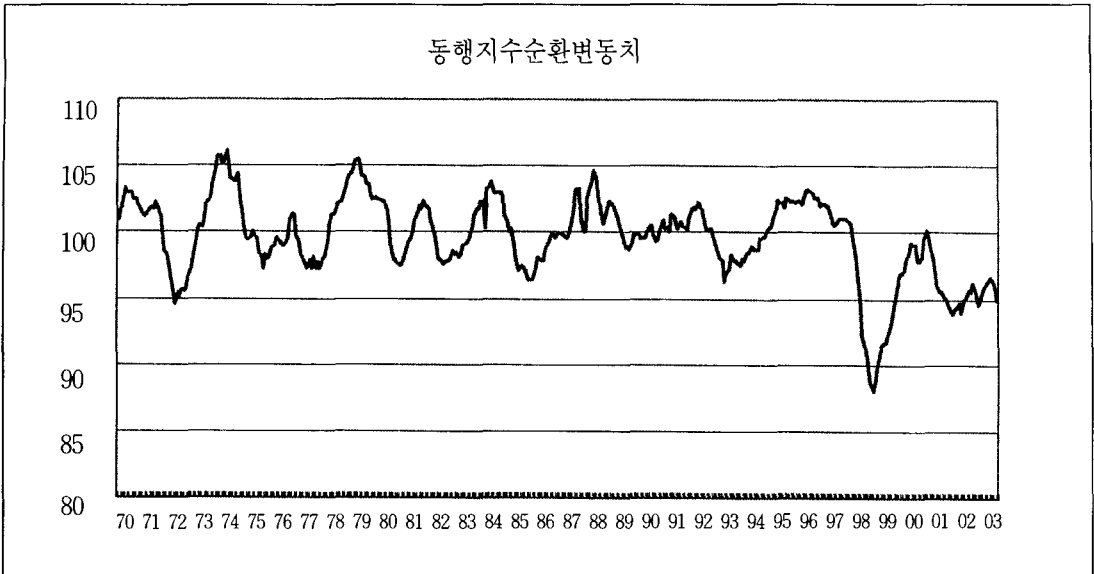
## 1. 하강국면에 놓여 있는 국내경기

한국경제는 2001년 8월에 바닥을 치고 같은 해 9월 이후 회복궤도에 진입했었다. 70년대 이후 2001년 8월까지의 7번의 경기사이클에서 평균 경기확장 기간이 34개월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경기확장은 적어도 올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또 실제로 적지않은 경제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경기는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였으며 올 2월 이후 본격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만큼 경기하강 국면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나타났다는 이야기이다.

경기가 조기하강한 것은 뜻하지 않은 대내외 악재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91년 3월 저점을 치고 4월부터 지속된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이 2001년 3월에 끝나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특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정보기술산업(IT)의 둔화가 시작된 것이 큰 원인이다.

또 2001년의 9. 11테러사건으로 미국과 여타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 문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북핵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경기동행지수와 기업의 체감경기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3가지 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산업생산, 제조업평균가동률, 도소매판매, 수출액, 수입액, 비농가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지표를 종합해 현재의 경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하는데 쓰이는 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2001년 8월에 바닥을 치고 9월부터 불안하지만 상승세를 보이더니 올 2월부터 본격 하강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01년 10월의 75.9를 바닥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여 작년 5월에는 143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BSI가 떨어지기 시작해 올 2월에는 89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추세적으로 볼 때 기업의 체감경기는 작년 6월부터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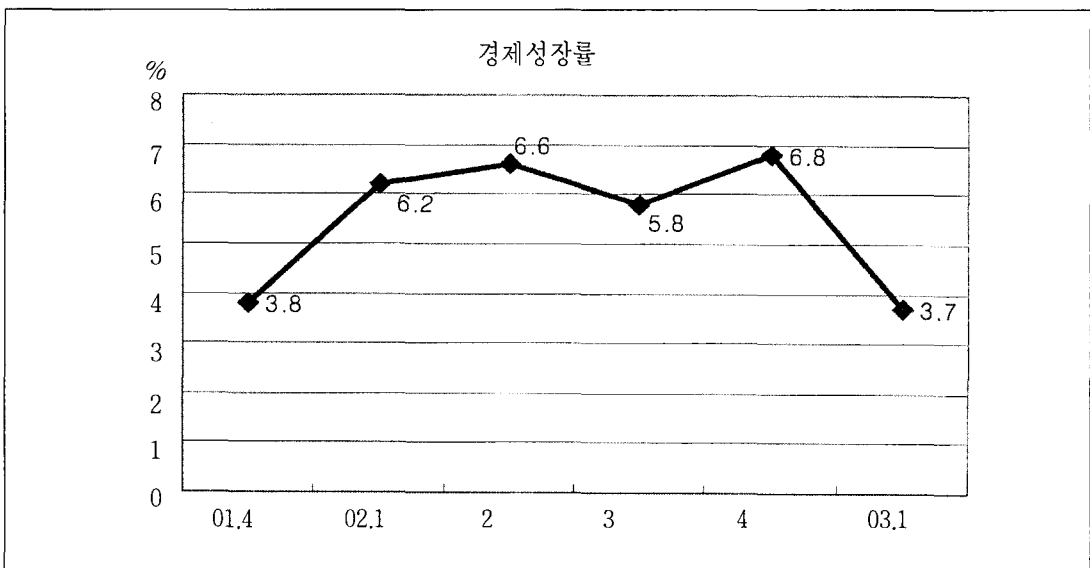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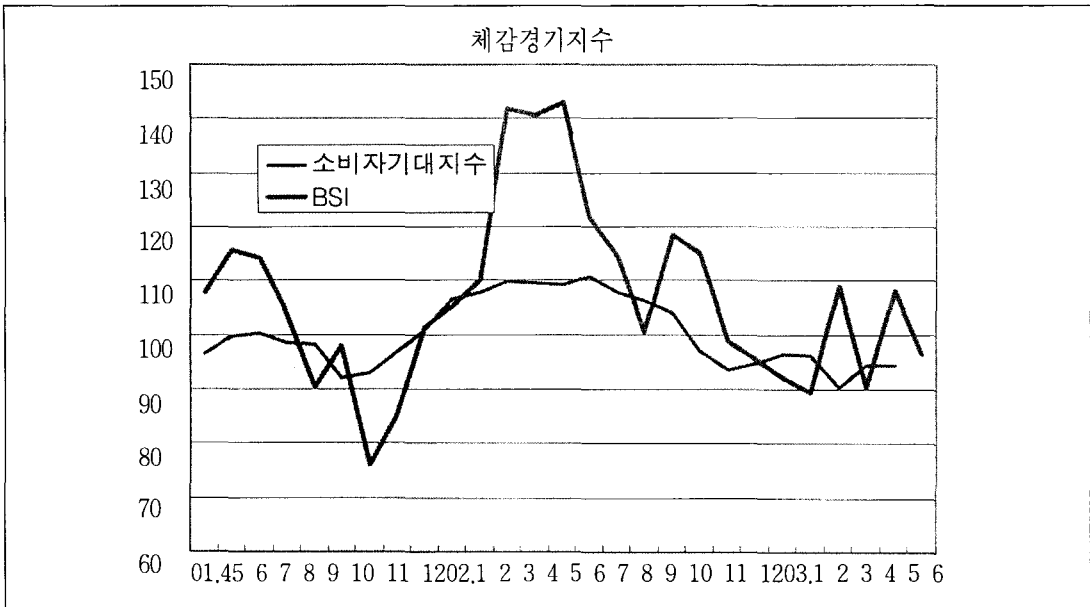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영을 보수적·방어적으로 하게 해

실제로 1~2분기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이 매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 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작성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해 왔다.

다만 올 4월과 5월에는 다소 회복된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는 있으나 이전의 경기호조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작성의 동행지수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를 포함한 보다 총체적인 국민경제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성장률이 있다. 이는 일정기간(분기 혹은 연간) 동안 국내에서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부가가치 합계, 즉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6.3%, 올 1분기에 3.7%를 기록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하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 2. 산업활동 크게 위축

경기하강을 반영해 산업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악화일로에 있다. 올 2월 도소매판매는 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1.8% 감소했으며 3월과 4월에는 감소율이 각각 3%와 4.3%로 더욱 확대됐다. 생산자제품재고도

작년 12월에 전월에 비해 0.3% 증가한데 이어 올 1월에는 2.1%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2월과 3월, 4월에는 각각 7.9%와 11.4%로 증가율이 더욱 확대됐다. 이러한 재고증가는 경기부진으로 출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생산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설비투자 부진이다. 올 1월 7.7% 감소한 설비투자 추계치(통계청 발표)는 2월에 -3.6%로 감소율이 다소 축소됐고 3월에는 0.2%의 플러스 증가로 반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4월에는 다시 -4.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수입단가는 상대적으로 올라 순상품교역조건(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값)이 크게 악화됐다. 올 1분기 교역조건은 88년 통계가 만들어진 이래 최저치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6.8로 전 분기(90.7)에 비해 4.3% 악화됐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는 결국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올 1분기 GDP증가율은 3.7%였으나 여기에 교역조건을 고려한 국민총소득(GNI)은 -1.8%의 감소율을 기록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 3. 경기회복 조짐 엿보여

7~8개월후의 경기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12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표를 보면 조만간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BSI와 소비자기대지수 등 체감경기지표도 최근까지 악화추세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올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획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올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2%대로 1분기보다 더 떨어지고 3분기에도 이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미국경기의 회복조짐이다. 미국경제는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 소비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1주일 전인 3월 11일 7524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급상승해 현재 9200선을 넘어섰다. 미국의 주가상승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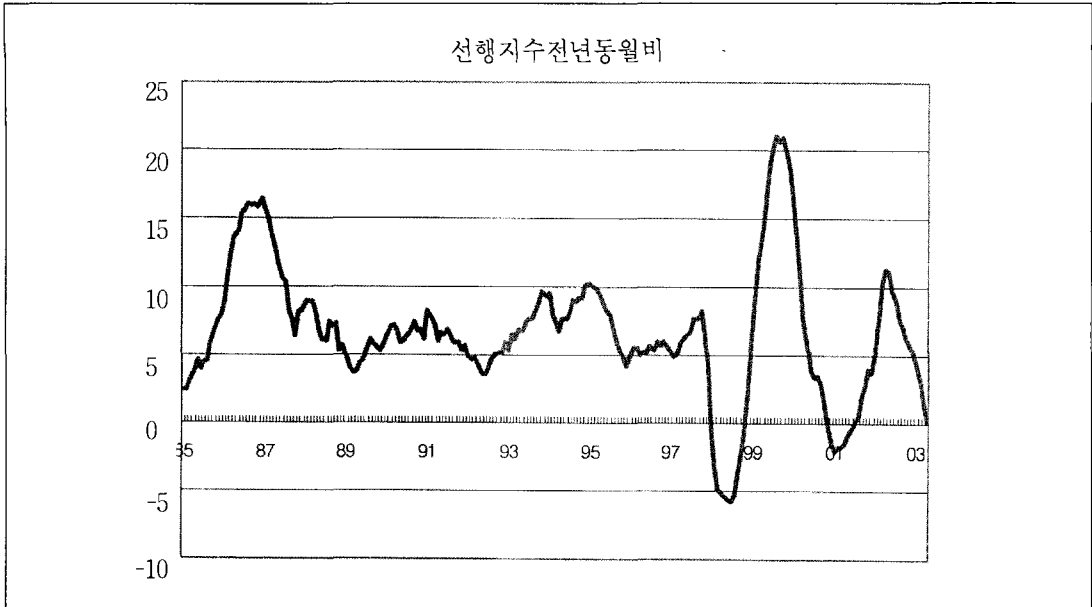
세계경제의 동시 회복가능성은 한국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경기회복 가능성의 주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약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심의회 상정해 놓고 있다.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올 연말 즈음에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핵문제가 다자간 협상의 틀 속에서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한국의 위협도가 낮아져 외국인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더욱 늘고 주가 상승→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은 경기저점이 2분기에 이미 나타났거나 3분기중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반 지표를 볼 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며 경기저점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볼 경우라도 4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 시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나서 그로부터 평균 7.6개월(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가 될 것이다. 이는 과거 경기사이클에서 선행지수의 선행시차가 그 정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핵문제가 연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비관적으로 여기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급감할 경우 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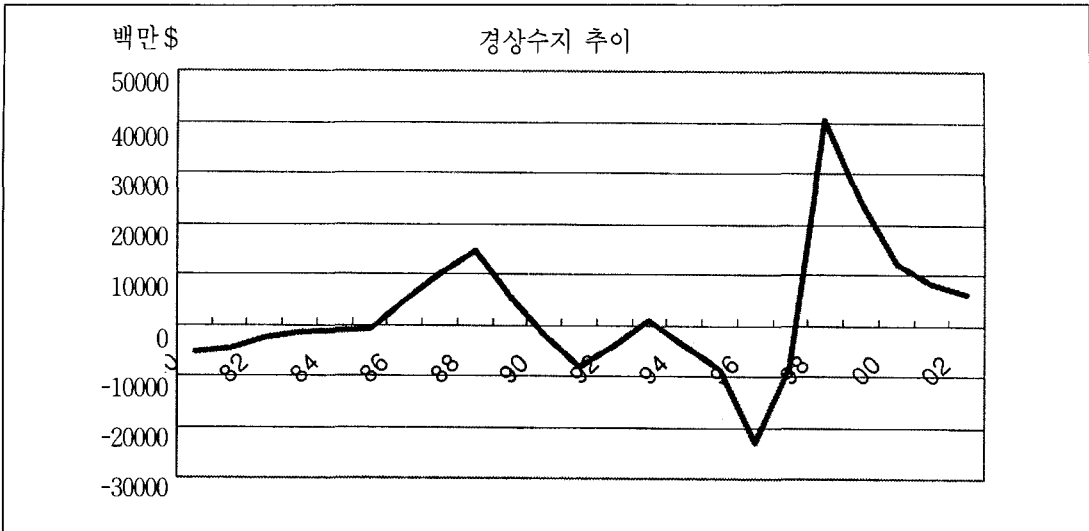
또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도 경기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 4. 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 예상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 2분기에도 적자를 지속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연간 1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5년간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 작년에는 6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통관기준)은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호조를 지속해 연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수출보다 높은 신장세를 지속해 연간 증가율이 작년 7.8%의 두 배가량인 15%선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출호조 및 내수회복으로 기계류, 부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소득·이전 수지는 2분기 이후에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지속해 연간으로 105억달러 내외의 큰 폭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분기에는 외국인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3분기에는 해외여행 경비, 4분기에는 사업서비스 지급이 서비스·소득·이전 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금리하락세 지속 전망

시장금리는 사상최저치를 경신해 3년만기 국고채금리의 경우 올 6월중 4%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회사채도 사상최저치를 계속 경신해 왔다.

금리하락 지속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 수요가 별로 없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올 5월에는 국내기업의 회사채 발행액보다 회사채 상환액이 더 많아 2,500억원의 순상환을 기록했을 정도다.

미국 등 세계적 저금리 현상에 따른 동조화 현상도 금리하락의 원인이다. 미국의 10년만기 장기국채금리는 6월 중순 현재 3.2%대로 58년 이후 4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10년 장기국채금리 0.4%대로 사상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독일 10년 연방국채금리는 3.6%대로 1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조절하는 기준금리는 최근 2.5%에서 2%로 인하되어 48년 이후 5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하락세는 세계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작년 말 현재 총 46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금수요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추가적 금리 하락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6. 물가도 비교적 안정될 듯

물가는 올 1분기에는 유가 급등으로 불안했지만 연간으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비용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여 수입원자재 비용부담이 줄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일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인상시기 조정 등의 시책이 취해질 경우 물가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계절적으로 8, 9월경에 홍수나 태풍이 엄습할 경우 농수축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원화가치는 절상 예상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2001년 1291원보다 40원 하락한 1251원을 기록했다. 미국측 요인과 한국측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원/달러 환율은 국내 상황이 안정될 경우 작년 평균보다 다소 하락(원화가치 절상)해 1150~1200원 사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원/달러 환율은 올초 한 때 1260원선을 웃돌기도 했으나 중반부터 하락해 올 6월 중순한 때는 1180원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원화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를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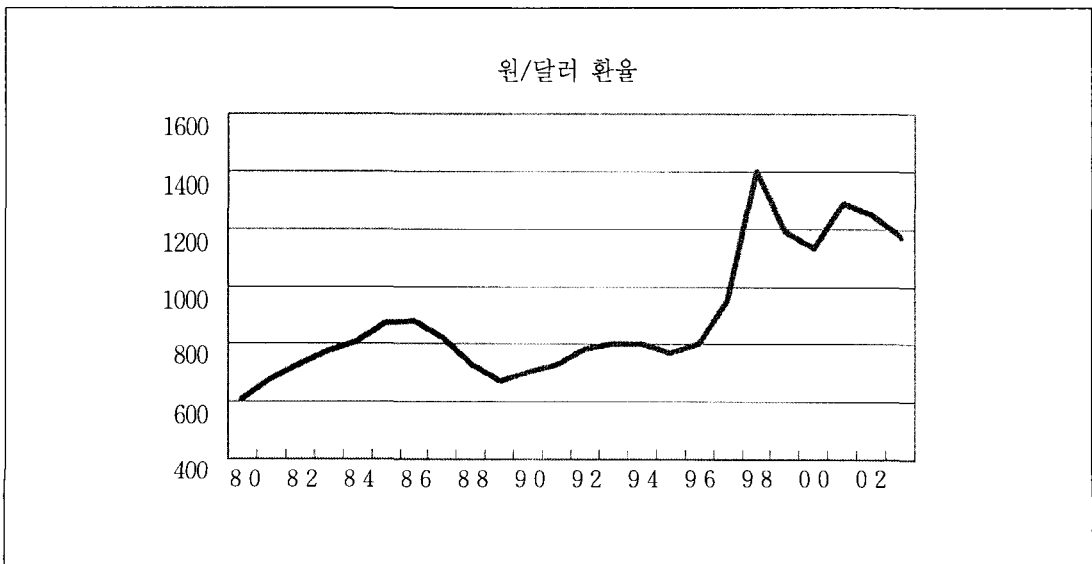
수 있다. 작년에 5023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5%를 넘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로 올해에는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 확대는 달러화의 신인도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산업계를 배려해 약한 달러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이는 점도 달러약세, 원화강세의 요인이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약한 달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누적돼 온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이에 따른 달러화 공급증가도 원화가치 절상 가능성의 이유다.

물론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화가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8. 주류소비 부진세 지속

대표적 비내구소비재인 주류에 대한 소비는 그 때 그 때의 경기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주류 소비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위스키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 1~5월중 국내위스키 판매량은 모두 146만 7000여 상자(한 상자 500ml 18병)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1만 5000여 상자보다 3.2%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월별 판매량 감소율은 계속 확대돼 2월 3.9%, 3월 9.6%, 4월 5.3%, 5월 1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리는 12년산 프리미엄급(P급)의 판매량은 지난해 1~5월 126만 9000여 상자에서 올 같은 기간 114만 8000여 상자로 10.1%나 감소했다. 이는 소비침체에다 작년 9월 슈퍼프리미엄급 위스키로 하이스코트의 '랜슬릿 17년' 과 두산의 '피어스클럽 18년' 이 나오면서 프리미엄급과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회사별 판매량은 디아지오코리아가 54만여

상자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진로 발렌타인스(47만여 상자), 롯데칠성(19만여 상자), 페르노리카코리아(8만여 상자), 하이스코트(7만여 상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외환위기때 한 자릿 수 이상 신장세를 보여온 소주가 올 3월에는 위스키, 맥주와 함께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주류협회에 따르면 진로, 두산 등 전국 10개 소주업체는 3월 한달간 679만 5000상자(360ml 30병)를 팔았다. 지난해 718만 1000상자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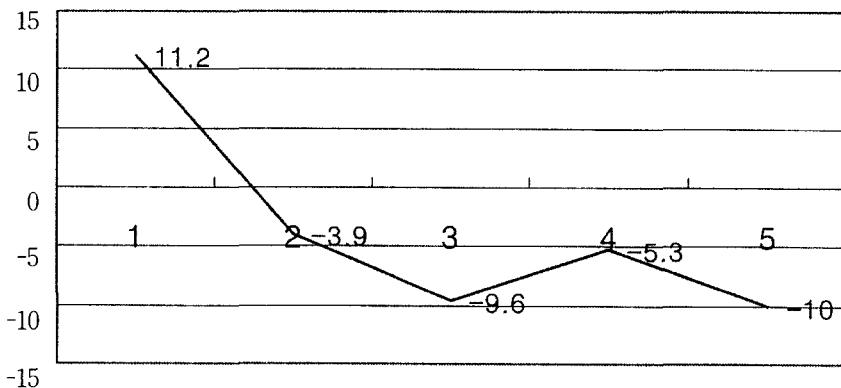
외환위기 시절인 98년 1~3월 소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올 1~3월 판매 증가율은 7.6%로 감소했다. 그만큼 소비불황의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 9. 주류업체 내수쟁탈전 치열

전반적으로 주류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와 맥주 등을 중심으로 주류업체들의 내수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주의 경우 금년 5월 중순 최대업체인 진로의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이후 두산, 금복

올 월별 위스키 판매량 증감율(%)





주, 보해양조 등 경쟁사들이 발빠르게 수도권 소주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서 점유율 2위인 두산은 참이슬 생산이 일시 중단된 틈을 타 '산' 소주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호기로 삼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영업망을 다지고 있다.

금복주, 보해양조 등 지방사들도 서울 공략을 위해 신제품을 내놓는 등 진로의 법정관리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쟁 소주사들은 전국 소주시장의 40% 규모인 수도권에서 그 동안 진로의 벽이 워낙 두터워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소주 사별 수도권 점유율은 진로가 약 90%로 독식 상태이며 두산 7%, 기타 지방사들은 1%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수도권 소주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두산은 '산'을 가지고 진로 '참이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보해양조와 금복주 등 지방 소재 소주업체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금복주는 최근 수도권 공략을 위해 출시한 고급 기능성 증류주 '마음의 궁'을 식당과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복주는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의 점유율을 수도권에서 올해 안에 최소 3%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진로는 법정관리에 반대해 경기 이천과 충북 청원 공장의 참이슬 생산을 중단해 왔으나 5월 16일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청원공장과 이천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참이슬 품귀 현상이 빚어져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진로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맥주의 경우도 하이트맥주와 OB맥주간에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주류공업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하이트맥주 시장점유율이 57.19%로 경

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한 4월 점유율(55.85%)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OB맥주측은 즉각 OB맥주의 4~5월 누계 실적은 43.5%로 1~3월의 42.7%에 비해 1%가량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두 맥주회사간 시장쟁탈전을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10. 맥주 수입은 둔화, 위스키·포도주 수입은 견조한 증가

IMF외환위기 직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소비 둔화에 따라 주류수입은 급감해 98년의 경우 맥주는 -83.7%, 위스키는 -42.4%, 포도주는 -71.5%의 감소율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99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서 주류수입도 크게 늘어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작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맥주 수입은 지난해 크게 둔화돼 증가율이 7.9%에 그쳤다.

올들어 5월까지도 맥주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4%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맥주 수입둔화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와 국내업체들의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포도주와 위스키의 수입은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올들어 5월까지 34.4%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수입규모가 가장 큰 위스키의 경우 2001년에 수입규모가 2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2억 4,794만달러로 22.5%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 표 1 〉 주류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5월
맥 주	5,181 (53.3)	842 (-83.7)	1,941 (130.4)	5,022 (158.8)	11,866 (136.3)	120,802 (7.9)	5,739 (14.4)
위스키	190,541 (1.9)	109,655 (-42.4)	115,919 (5.7)	180,194 (5.7)	202,355 (12.3)	247,941 (22.5)	125,248 (31.5)
포도주	22,809 (39.0)	6,491 (-71.5)	15,122 (-71.5)	19,802 (31.0)	23,109 (16.7)	29,432 (27.4)	15,554 (34.4)

주 : ( ) 속은 증가율

올들어 5월까지의 31.5%로 수입증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 4분기 정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류수입 증가율은 내년에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화가치가 더 절상되어 원화로 환산한 수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류수입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Nothing great was ever achieved without enthusiasm

위대한 것 치고 정열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 Ralph Waldo Emerson -